

명예기자석

명예기자석은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2~4매
◇보낼곳 : 서울·수원 (본사편집실)

학내 곳곳에 누적된 제반문제 — 경희학원 발전을 위한 제언

수원캠퍼스 학생이면 누구나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승차질서에 대하여 한마디 하면 사실 천구가 줄에 서서 기다리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자기앞에 설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니며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 '시간은 누구에게나 중

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강의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대다수 학생들이 차에서 잠과 잠담으로 버리는 실정이다. 둘째, 배를 거듭할수록 더욱 사람들은 '이기주의'로 물들고 있다. 예컨대, 끼어들기를 하고도 미안해 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것이다. 한 예로 강남이전 학교건 간의 승차장에 오면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선두서부터 줄타는 것이다.

이상은 승차질서에 대해 언급했다. 이제는 여러가지 학교안팎의 문제점을 짚어나가고자 한다.

1. 중앙 도서관의 개관일은 정녕 희망사항인가?
지난주부터 학원회관이 완공되어 각 동아리와 관계부처가 입주했다. 그런데, 이미 완공되었어야 하는 중앙 도서관은 공사를 그만둔 채 보기가 아주 쓸쓸한 스럽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 아닌가! 배움터라는 곳이 어떻게 공부공간은 갖추어 놓지 않은 채 부차적인 것부터 하는가! 학교당국은 단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억지만 부릴 것인가? 조속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한해 약1000여의 당구장으로 들어가는 돈의 액수는?
무려 3억이 넘는다. 당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당구비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것 역시 잘못된 문제이다.

3. 복사비는 25원이 아니라 20원이어야 한다.

서울소재 대학내의 복사비는 20원이다. 따라서, 학교 건물내의 복사실은 가격을 수정해야 한다.

유독 당구와 복사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상대적으로 꽤물가가 비싼편이다. 속히 정상가격으로 환원해야 한다.

4. 우리의 자세
요즘 눈에 쉽게 띄는 것 중 하나가 '호우회'의 문구인데, 그 중 하나 기억 난다. '경희사랑' 사랑은 방관 또는 무관심이 아니고 관심, 참여이다. 경희의 수원배움터는 총학생회나 인복회 등의 간부만으로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없다. 평범한 여러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더욱 좋은 상태에서 공부 및 과외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교통문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경희 학우의 대다수가 서울에서 통학을 한다. 이는 고속도로가 급속히 저속도로 되는 현실을 보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 기사 아저씨들의 애환을 같이 인식하고 다른 보다 나은 길을 찾아야 한다. 새로이 두각되는 일로 전철유치인데 이것 역시 8천 경희 학우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6. 학교주변의 환경
솔직히 말해 이것이 소위 말하는 대학교 주변인가?

난 주변환경이란 단지 놀고먹고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재래로 보도 블록이나 깔아놓았나 하는 것이다. 비만하면 어떠한가?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마음은 아마 학교생기 기화로 한몫보자는 안일한 태도로 생각해본다. 더이상 상황정리를 하지않아도 될 줄 믿는다.

이것저것 두서 없이 나열을 했다. 나는 학교내에서 먼저 승차 질서확립'리본을 달고 다닐 것이다. 동창할 학생들을 기다리며 경희학원 발전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남 태 성
<전자·3>



◇고 황 골◇

컴퓨터연구회 전시회

경희 컴퓨터연구회 (COMCOM)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프로그램 전시회를 연다.

자세한 프로그램연구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자동계입 등 다양한 내용이 소개된다.

영교과·정의과 졸업생 환송회

영교과 학생회는 오늘 오후 6시 학원회관 4층식당에서 졸업생 환송회를 갖는다.

또한 정의과 학생회는 오늘 오후 5시 교수회관 식당에서 졸업생 환송회를 열어 선배배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진다.

생물학과 예술제

생물학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

한 생물학과 '제10회 예술제'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이번 예술제는 학년별 참가자랑, UR협상의 반민중성을 고발하는 '평의 사람들' 순으로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 학원회관 2층식당에서 '졸업생 환송회'도 함께 치러진다.

◇신방과 졸업생 환송회◇

신방과 학생회는 오는 23일 오후 6시 하이델호프에서 졸업생 환송회를 연다. 이번 환송회에서는 졸업생에게 술을 많이 먹여 졸업 전에 보낼(?) 수도 있다고 신방과 학생들이 엄포를 놓는다.

또한 체육대학 여학생 모임은 내일 오후 5시 경희회관에서 '건강한 경희여성'만 졸업생 환송회를 가진다.

◇서 천 골◇

크리스찬 연합 중강예배

경희 C.C.C. (대학생선교회)는 오는 19일 5시30분 '경희판례' 발간과 아울러 경희 C.C.C. 10주년 추수감사기념예배'를 외국어대학 소극장에서 갖는다.

또한 크리스찬 연합중강예배도

오는 20일 5시 3호관시각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가스펠 정기총회

종교동아리 가스펠이 오는 22일 정기총회를 가지며 12월 12일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군부대의 선교를 위한 연수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서어과·사회학과 졸업생 환송회

서반어학과 학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강남 옥스포드에서 졸업생환송회를 가진다.

화회비를 내신 분은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한편 사회학과 학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12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서반의 밤'을 개최한다.

행정학과 행정고시반 모집

행정학과는 오는 22일 오후 5시 사회과학대 305강의실에서 고시반 입실자 모집 시험을 치른다.

원서는 사회과학대 308호에서 배부하며 시험과목은 1학년 영어, 2·3학년 영어·한문·민중이과고

교수협의회에 바란다 총·학장 선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우리학교의 교훈을 보면 학원의 민주화로 부터 시작하여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까지 모두 민주화 일색으로 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압을 받기만 하였던 저 50년대에 이미 민주화를 부르짖었으니 현실에서 볼때도 선견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경희대는 이미 교내에 민주화를 부르짖어 놓고 전국의 수많은 대학이 이미 총·학장의 직권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수년전 민주화 바람 덕분에 우리 대학도 교수협의회가 이루어져 벌써 제2회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있다.

우리 교수협의회 회장에 보면 총장의 임명에 관하여 건의하기로 되어 있으나, 학교당국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듣는 바에 의하면 교수협의회 평교수위원에서 총장직선제를 학교측에 건의하려 하였으나 학교에서 규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접수조차하지 아니하였다고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민주화'를 교훈으로 갖고 있

는 대학이 전체교수의 모임인 교수협의회의 의견을 이처럼 등한시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한 현 교수협의회 임원단을 볼 것 같으면, 애초에 그 탄생부터 이상한 감이 많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현 우리 대학의 총장 임기가 91년 2월말로 끝나고 협의회 임원 임기도 올해에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총장 직선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없기에 뜻있는 교수 10여인이 모여 '총장직선제'의 여부와 그 일정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음에도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

현 교수협의회는 분명히 89년 말에 총장직선에 대한 교수들의 뜻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0년 1월 발행 제8호 회보에 교수 70%가 직선제를 원하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직선제를 관철시킬 의사가 없다면 이러한 여론조사를 무엇때문에 하였단 말인가?

도대체 직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일을 했다면 무엇을 했으

며, 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인지 알려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박 찬 국
<한의대교수·한의학>

학생회관 이용에 많은 문제점 노출돼

수원캠퍼스는 이번 학기 들어 학교의 학생이면 누구나 학수고대하는 학생회관이 완공되어 모든이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나 입주 한달을 넘긴 현재 학생회관의 실태는 어떠한가.

지난주의 경우 여러차례 물이 안나오고 또한 전기가 안들어와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지난주의 경우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최소한 공공만이라도 해주는 학교측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나 현 우
<외대영문·1>

올바른 대학언론의 위상과 역할

나도 경희대학교의 한 학생으로서 지난 12일자 대학주보에 실린 내용을 보고 심히 유감스러운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정확하지 못한 비판은 비난이 되고 결국 유언비어는 이런 것

내용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혼란을 주고있다.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학생회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축적이 있고 표제는 선거자체에 두고 있

경우 실제로 선거로 인해 사표를 낸 집행부 간부는 3명에 불과하다. 그전에 개인의 사정으로 사표를 낸 경우까지 선거로 인한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우로 하여금 학생회를 불신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개의 사업은 선거이

의 무관하게 힘있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대중적 사업이 되지 못한 점들을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지 결코 선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회에 대한 비판을 자칫하면 학우대중들로 하여금 학생회를 올바르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를 불신하고 학생회로 부터 이탈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언론을 이용한 횡포를 무수히 보아 왔다. 우리는 이러한 언론탄압에

대학인과 대학언론인들은 대학인의 임무로써 이를 비판해 내고 대학언론을 탄압으로 부터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단하게 계속하고 있다. 언론은 소수의 것이 아니라 다수의 것이므로 어떠한 외부압력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만큼 언론의 책임도 막중하다. 사실보도는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번 보도 같은 경우 학생회사업이 어떠한 것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무슨 단체에서는 어떻게 봤다는 식의 구체적 보도) 단어나 문구의 선택에 있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비판을 기꺼이 받든 현상체만의 비판이 아니라 원인의 올바른 분석, 그리고 대안을 낼 수 있는 비판이어야 한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성실한 노력만큼 그 댓가가 적음을 아쉬워 하며 대학언론의 좀더 힘찬 발전을 기대해 본다.

학우들의 지팡이

현상자체만의 비판이 아니라 원인의 분석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비판 필요

기 때문이다. 기사내용은 기본적으로 언론으로서의 임무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알고 있기는 윤리대의

전에 마무리되고 있고 (결산보고 등 마무리작업이 원만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과학생회 같은 경우는 학생회선거와는 거

대해 엄청난 회생을 내면서 올바른 언론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국민들은 알지 못하게 장기적으로 세뇌되어 가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리라.

평가기준으로 전락한 학점



11월주제 '학 점'

일전 포항공대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고 감명을 받았다. 졸업반 학생 모두를 대기업에서 모셔가기 위해 설명회를 갖는 등 여러가지 좋은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자 한다는 기사이다.

사람과 사람은 만남에서 시작한다. 각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훌륭한 교수, 좋은 학생들이 그 대학에 많이 들어오면 그 대학은 달라질 수 있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따르면서 공부하면 결과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어떠한가. 교수가 점수를 잘주느냐, 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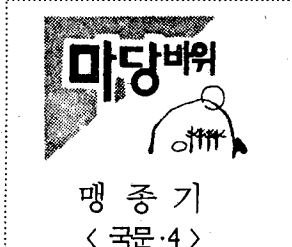


한 한 수
<사회대교수·경영>

어느교수가 점수를 잘 주느냐에 따라 수강인원이 결정되는 우리네 대학의 현실

학점은 공부한 만큼 나온다. 시험지는 하나의 거울이다. 내가 대학2학년때 전공증 한 과목에서 겨우 F학점을 면한 적이 있다. 너무 한심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일본서적 취급하는 책방에 들러 교수님의 강의교재가 무엇인지 찾아 구입해서 무조건 외워 좋은 성적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학점의 평점이 얼마냐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도 되고 불합격도 된다. 취업에 필요한 추천서를 써 줄 때도 학점은 영향을 준다. 그러나 대학생은 학점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참다운 대학생상을 보내기 바란다.



맹 중 기
<국문·4>

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1면 1면기사의 학생회 선거 문제점'은 표제부터 그러하다. 양 캠퍼스의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서울캠퍼스의 경우는 표제와 기사

바튼을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찬란한 존재다. 갈채도, 스포트라이트도 모두 그에게 쏟아진다. 그렇다고 다 지휘자가 되기를 고집할 수는 없다. 알이다. 베토벤 심포니 9번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바이올린도, 트럼펫도, ... 행로도 있어야 한다. 30분을 카운터 뒤에있는 약방주인처럼 우두커니 서있어야 하는 팀파니 주자도 있어야 한다. 그 뒷자리를 지키는 팀파니가 없다면 '환희의 송가'는 감동의 반을 잃어버린다. 눈여겨 보는 이 없어도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두드려져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잘 어울리기 위해서. 사회도, 화사도 하나의 오케스트라. 한인그들은 전체의 하모니를 위해 자기자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숨은 일꾼들에게 뜨거운 갈채를 보낸다.

팀파니 奏者에게 갈채를—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두드려져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잘 어울리기 위하여



韓—그롭

한일합성, 국제상사, 경남모직, 동서유학, 부국증권, 하이트리, 리젠스 - 제주, 하이트리리젠스 - 부산, 진해화학, 동도컨트리클럽, 한화개발, 한화건설, 한화증권, 한화증권, 한화증권